

도, 'GAP 경진대회' 참여 단체 선정

〈농산물우수관리인증〉

5월 말까지 시·군별 1건 이상 심사... 6월24일까지 최종 3건 내외 우수사례 추천 계획

전북도가 GAP확산을 위한 붐을 조성하기 위해 우수단체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28일 전북도는 7월에 개최되는 제2회 GAP 우수사례 중앙 경진대회에 도내 우수단체(법인)가 추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농산물우수관리인증(GAP, Good Agricultural Practices) 제도란 생산단계에서 판매 단계에 이르기까지 농산식품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해 소비자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고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통해 국내 소비자 신뢰제고 및 국제시장에서의 우리나라 농산물의 경쟁력 강화, 저투입 지속가능한 농업을 통한 농업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이다.

GAP 중앙경진대회는 2015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GAP를 실천하는 다양한 경영체의 성공사례를 모델화하고 농산물의 부가가치 창출 및 농가 소득 향상을 도모해 소비자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는데 목적이 있다.

도는 지난해부터 GAP 우수사례에 대한 발굴·홍보를 통한 대국민 관심도를 제고하고 및 농업인의 GAP인증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GAP 우수사례 중앙 경진대회'에 참여하고 있다.

올해 도는 GAP 인증 확산을 위해 많은 수상자가 나올 수 있도록 시·군별로 5월 말까지 1건 이상 추천을 받아 1차 서류 및 현장심사, 2차 발표 심사를 거쳐 최종 3건 내외의 지역



테러범 신속 제압 26일 오후 경기도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에서 실시된 평택항만 방호 민·관·군 합동 테러 훈련에서 해군 UDT 대원이 테러범을 제압하고 있다.

우수사례를 선정해 6월24일까지 추천할 계획이다.

중앙 우수사례 경진대회 수상자에게는 대상 500만원, 금상 300만원, 은상 200만원, 동상 150만원 상금이 지급되며 GAP농산물 기획 판매전 우선출품, 지상파 다큐멘터리 제작을 통한 홍보, 대형유통업체 판로확보 등 다양한 마케팅 사업도 지원된다.

도 관계자는 "GAP 경진대회 참가를 통해 GAP 확산 붐 조성과 도내 농산물의 안전성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됐다"며 "올해 대회에는 작목반 및 인증단체를 중심으로 참가해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며 GAP 인증농가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GAP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명품 표고버섯 생산하기'의 익산 참 표고가 동상을 수상한 바 있다. /정영수 기자

여행사 H.I.S JAPAN 군산 방문

일본의 대형 여행사인 H.I.S JAPAN 관계자 11명이 전라북도 관광상품 개발을 위해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2박3일의 일정으로 군산, 전주, 순창 등을 방문했다.

H.I.S JAPAN은 전세계 61개국 129개 도시에 192개 점포를 갖고 있는 일본의 대형 여행사로 군산방문을 통해 한국관광상품의 다양화를 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문단 일행은 군산에서 지원한 일본어 전문 통역 안내원과 동행해 경안동 철길마을을 시작으로 근대역 사박물관, 동국사 등 원도심의 주요 관광지를 둘러보며 관광상품 홍보를 위한 촬영을 진행했다.

김성우 군산시 관광진흥과장은 "이번 방문을 계기로 일본인 관광상품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다"고 밝혔다. /군산=문정곤 기자

날아다니는 응급실 '닥터헬기' 6월 1일 출범

원광대병원 중심 운항... 탑승 응급의학전문의 30분 내 사고현장 도착

전북도 내 중증 응급환자들의 이송 체계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28일 전북도에 따르면 날아다니는 응급실 '닥터헬기'가 오는 6월1일 출범식을 갖고 원광대학교병원을 중심으로 운항한다.

닥터헬기는 전문의료장비를 구비한 이송전용헬기로 도서·산간 등 이송 취약지역에 발생한 중증응급환자를 골든타임 내 응급조치하고 의료기관까지 이송하는 '응급의료전용헬기 운영 지원사업'의 일환이다.

지난해 말 전국에서 6번째로 이 사업에 선정된 도는 동서 175.5km, 남북 95km로 동부산악지형 및 도서가 서해안에 넓게 분포하고 있다. 또한 14

개 시·군 중 11개 시·군이 응급의료 취약지역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2014년 3대 응급질환(중증외상, 급성심근경색, 뇌졸중) 환자의 최종 치료병원 도착까지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62.1%인 것으로 나타났다.

닥터헬기는 도내 가장 먼 지역도 30분 안에 도착함으로써 최종 치료병원 도착까지 1시간 내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원광대병원에서 도내 가장 먼 지역은 군산 여청도(직선거리 90km)로 닥터헬기가 안전권유속도(130노트)로 운항했을 때 25분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닥터 헬기는 365일 전액 무료로 중증응급환자 이송을 위해 대기할 예정이다.

닥터헬기의 운항범위는 원광대병원 반경 100km 이내이다. 다만 헬기운항의 안전상 문제로 야간운항은 불가능하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30분 내 사고현장에 도착 전문 응급처치가 가능해져 중증 응급환자 사망률 감소 등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영수 기자

아토피 피부염 의료비 지원

도,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연간 1인당 50만원까지

전북도는 도내 아토피피부염 환자들에 대해 의료비를 지원해줌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주고 있다.

26일 도는 도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의 아토피피부염 진단자(질병코드 L20)를 대상으로 연간 1인당 50만원까지 최대 5년간 지원한다고 밝혔다.

도는 올해도 아토피예방관리를 위해 2억 9,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도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아토피피부염 의료비 지원과 아토피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의료비 지원 신청을 위해서는 아토피피부염진단서, 의료비영수증, 건강보험증 사본, 통장사본 등

을 제출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각 시·군 보건소로 문의하면 된다.

또한, 2016년 도내 지정 아토피·천식 안심학교는 익산시 7개소, 김제시 2개소, 완주군 7개소, 진안군 27개소로 총 43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지정된 안심학교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예방교육과 체험활동 등을 실시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아토피피부염 예방을 위해서는 목욕 후 3분 이내 하루 2번 이상 보습제를 바르도록 하며, 스트레스 관리로 정서적 안정을 취하는 것이 좋다"며 "또한 효과적이고 검증된 치료방법으로 꾸준한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영수 기자

"드론으로 북한에 USB 1000여개 투하"

'오슬로 포럼'에서 대북인권단체 '노 체인' 정광일 대표 밝혀

헬리콥터드론을 이용해 북한 내부에 다양한 정보가 담긴 USB 등을 보내는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CNN, 미국의소리(VOA)방송 등에 따르면, 대북인권단체 '노 체인(No Chain)'의 정광일 대표는 25일(현지시간) 노르웨이에서 열린 '오슬로 자유포럼' 마지막 날 행사에서 "헬리콥터 드론으로 북한에 USB, SD 카드, 플래시 드라이브 등을 보내는 활동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헬리콥터 드론은 조종사 없이 무선전파의 유도에 의해서 비행과 조종이 가능한 헬리콥터 모양의 무인항공기이다.

정 대표에 따르면 '노 체인'은 올해 1월15일 세계 처음으로 헬리콥터 드론을 통해 북한에 USB를 보냈다. 드론을 통해 이전보다도 더 많은 양의 USB를 더 빨리 북한에 보낼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그는 또 USB에 한국과 서양의 영화, TV 방송물, 음악, 위키피디아 무료 인터넷 접속 등 북한 외부의 정보들을 담아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연설 중 USB를 들여보이며 "이 막대기에 큰 희망을 걸고 있다"며 "이것이 조국에 자유를 가져다 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CNN은 드론을 이용해 북한에 외부 정보를 들여보는 방법에 대해선 오래 전부터 대북 활동가들 사이에서 논의돼왔지만, 실제로 이미 드론이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이 공개되는 이번

이 처음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대북인권단체들은 풍선 등을 이용해 북한 내부에 전단과 USB 등을 투하하거나 인편에 휴대전화 등을 들여보내는 방식을 이용해왔다고 전했다.

노 체인과 인권재단에 따르면, 헬리콥터드론을 이용해 그동안 북한에 투하한 USB와 SD카드는 1000개가 넘는다. 그러나 이들 단체 관계자들은 드론을 어느 나라에서 띄웠으며, 해당 국가 정부는 알고 있는지, 그리고 USB 등을 북한 어떤 지역에 투하했는지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CNN은 전했다.

정광일 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자신이 지난 1998년 북한에서 간첩혐의로 체포된 뒤 정치범수용소인 요덕관리소에 수감돼 열악한 환경 속에서 모진 고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3년 만에 무형으로 풀려난 뒤 곧바로 북한을 탈출해 2003년에 한국에 정착해 북한에 외부세계의 정보를 보내는 일을 시작했다는 것.

미국의 국제 인권단체인 인권재단이 주관하고 노르웨이 외교부와 노르웨이의 프리트로드 재단 등이 공동 후원하는 오슬로자유포럼은 지난 2009년 시작돼 올해로 8번째이다. 이 연례행사에서 탈북자가 연설하는 지난 2010년 강철환 씨를 시작으로 정 대표가 6번째이다. /박용주 기자

전주시민을 위한 무료 특강

한국스피치&리더십 컨설팅과 전북도내 6개대학 평생교육원 스피치과정원우회 공동으로 전주시민과 도민을 위한 무료 공개 특강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본 행사는 삶의 즐거움과 명랑한 사회를 위하여 시민으로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 인성학 및 부부대화기법 특강으로 실시됩니다.



강사: 주선희

- 원광디지털대학 교수
- KBS 사회교육원 강사
- 인성학박사 1호
- KBS 아침마당 패널

강의주제: 행복을 부르는 인성



강사: 김양욱

- 한국스피치&리더십 컨설팅 대표
- 전주교육대학교 겸임교수
- 전북대 평생교육원 전담교수
- KBS 아침마당(3회) 출연자

강의주제: 부부대화기법

◎일시: 2016. 5. 25(수) 오후 7시 ◎장소: 전주시청 강당

◎문의전화: 231-6669, 285-6676 (주소: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10)

주최: 한국스피치 & 리더쉽 컨설팅
도내 6개대학 평생교육원 스피치과정 원우회

고창군 공고 제 2016-633호

고창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도로) 결정(안) 및 개발행위 허가의 제한지역 지정(안) 주민의견청취 열람 공고

고창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도로)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입안하고, 고창군 고창읍 덕산리 7-1번지 일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 허가의 제한지역 지정을 위해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1. 고창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도로) 결정 조사

가) 도로 결정 조사

구분	구	모	구	모	구	모	구	모	구
구	구	구	구	구	구	구	구	구	구
신설	소로	3	121	6	국지	189	소로2-109	소로2-109	일반
					도로		교촌리84-4	교촌리285	도로
									초등학교

나) 관계도서: "계제생략" (열람장소 비치)

2.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지역 지정 내용(안)

가) 제한지역 위치: 고창군 고창읍 덕산리 7-1번지 일원

나) 제한지역 면적: 39,340㎡

다) 제한대상 행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채취, 물건적치 등

라) 제한기간: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일로부터 3년 간

마) 관계도서 및 토지조사: "계제생략" (열람장소 비치)

3. 열람 및 의견제출

가. 열람기간: 신문제재 다음날로부터 14일 간

나. 열람장소: 고창군청 건설도시과

다. 의견제출: 위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고창군청 건설도시과 ☎ 063-560-2563 및 군홈페이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5월 25일 고창군수